

7대 6 기적의 역전승...인터밀란, 스페인 거함 침몰 시키다

UEFA 챔스 준결승 2차전 바르샤 4-3 격파...2년만에 결승 진출
아스널-파리 생제르맹 승자 상대로 15년 만 빅이커컵 우승 도전

이탈리아 프로축구 인터밀란이 스페인 거함 FC 바르셀로나를 물리치고 2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무대로 돌아간다.

인터밀란은 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24-2025 UCL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바르셀로나에 4-3 승리를 거뒀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3-3으로 비긴 인터밀란은 합계 7-6으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인터밀란은 2년 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를 잡았다. 2022-2023시즌 대회 결승에선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 져 준우승했다.

2021년 인터밀란 사령탑에 오른 시모네 인차기 감독은 4년 동안 두 차례나 팀을 유럽 최상위 대회의 결승 무대에 올려놓고 명장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인터밀란은 아스널-파리 생제르맹(PSG) 준결승 승자와 6월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단판으로 챔피언을 가린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와 아스널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준결승 2차전을 치르며, 1차전에선 PSG가 1-0으로 이겼다.

인터밀란은 1승만 더 올리면 2009-2010시즌 이후 15년 만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한다.

인터밀란은 3경기를 남겨놓은 세리에A에서 선두 나폴리에 승점 3 뒤진 2위(승점 74점)를 달리고 있어 '더블'(2관왕)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인터밀란은 전반 21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전반 46분 하칸 찰하노를루의 연속골로 2-0까지 앞

서나가 여유롭게 승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후반 9분 에릭 가르시아, 15분 다니 올모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부의 흐름은 후반 막판에 다시 요동쳤다.

잠잠하던 바르셀로나 하피냐의 오른발이 후반 43분 번뜩였다.

페드리의 전진 패스를 받은 하피냐는 골 지역 왼쪽에서 날린 원발 슈팅이 골키퍼 안 조머에게 막히자 오른발로 재차 슈팅해 4-3을 만들었다.

대회 13호 골을 넣은 하피냐는 세르후 기라시(도르트문트)와 득점 랭킹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역전패 위기에 몰린 인터밀란은 후반 추가시간 프란체스코 아체르비의 골로 기사회생했다.

후반 48분 덴젤 뎀프리스가 오른쪽에서 넘겨준 땅볼 크로스를 아체르비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대에 꽂았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했다.

결국 승리는 인터밀란의 차지였다.

연장 전반 9분 골 지역 오른쪽에서 메히디 타레미가 뒤로 공을 내주자 다비데 프라테시가 원발 슈팅을 골대 왼쪽에 꽂았다.

땀을 흘리며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앗은 프라테시의 침착함, 앞서 오른쪽을 헤집으며 바르셀로나 수비망을 찢어낸 마르쿠스 튀랑의 드리블이 빛난 득점이었다.

인터밀란은 5-4-1 대형으로 '두 줄 버스'를 세우고 남은 시간을 버텼고, 바르셀로나는 끝내 동점골을 넣지 못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헤더는 골대를 뚫아갔고, 경기 종료 4분 전 라민 야말이 날린 원발 슈팅은 조머의 손끝에 걸렸다.

/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밀란과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인터 밀란의 다비데 프라테시(가운데)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다른 DNA...호날두 주니어, 포르투갈 U-15 축구대표팀 발탁

호날두 "자랑스럽다" SNS에 올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의 장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주니어(14)가 포르투갈 15세 이하(U-15)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다.

주앙 산투스 포르투갈 U-15 대표팀 감독은 6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유소년 국제대회에 출전할 22명의 선수 명단을 포르투갈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호날두 주니어를 포함했다.

호날두는 SNS에 "아들아, 자랑스럽다!"는 글과 함께 호날두 주니어의 대표팀 승선 소식을 전했다.

호날두 주니어는 아버지가 땀 여러 명문 팀에서 축구를 배워왔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유벤투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유소년팀을 거쳐 지금은 아버지의 현 소속팀인 알나스르에 몸담고 있다.

호날두 주니어가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맨유 유소년팀에서 웨인 루니의 아들 카이 루니

와 함께 뛰어 화제를 모았고, 최근엔 알나스르에서 아버지의 상징과도 같은 '호우(시우)' 골 세리머니를 따라 하는 영상이 SNS에 돌았다.

호날두 주니어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험할 첫 대회인 크로아티아 유소년 국제대회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포르투갈은 이 대회에서 일본, 그리스, 잉글랜드와 맞붙는다.

호날두 주니어의 유소년 국가대표 경력은 포르투갈에서 시작됐으나 최종적으로 그가 입을 성인 대표팀 유니폼은 달랠지 수도 있다.

규정상 출생지인 미국, 어릴 적 거주한 스페인 대표팀 선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날두는 호날두 주니어를 포함해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올해로 마흔인 호날두는 여전히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을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이끈 그는 현재 A매치 136골로 이 부문 역대 1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가 자신의 SNS에 아들의 포르투갈 U-15 축구 대표팀 승선 소식을 알렸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캡처>

광주시청 역도팀, 창단 첫 아시아선수권 출전

안시성·손현호 등 19명 참가

광주시청 안시성(28·64kg급)이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2018년 광주시청 역도팀 창단 이래 첫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참가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선수 선발은 예비 선발 선수 중 2024년 치러진 대회 기록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는 안시성 포함 여자 10명, 남자 9명 등 총 1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안시성은 지난 3월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

출전 선수 명단에는 군입대 전 4년간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했던 손현호(25·국군체육부대·81kg급)도 이름을 올렸다.

손현호는 지난 28일 '제84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용상에서 205kg을 들어올리며 한국 기

준기록(204kg)을 넘어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국제역도연맹(IWF)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고, 세계기준기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역도연맹도 한국 기준기록표를 작성해, 남자 81kg급 한국 기준기록을 인상 163kg, 용상 204kg, 합계 365kg으로 정했다.

손현호는 지난해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2024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 용상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현호는 7월 제대 후 광주시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외 출전 선수로는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해정(87kg, 고양시청),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김수현(76kg, 부산시체육회), 원종범(남자 96kg, 강원도청) 등이 있다.

한편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부터 15일까지 중국 장산에서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서석중 김도부, 용인대 총장기 개인전·단체전 우승

육하준 금메달 2개 획득 등

광주서석중 김도부가 '제28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서석중 김도부 육하준(3년)은 남중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얻어냈다.

'주장'인 육하준은 4강전에서 한서준(부원중)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만난 이상엽(동평중)과의 경기에서는 머리치기로 연속 득점해 2-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견 윤찬희(3년)는 4강에서 이상엽과 겨뤘으나 1-2로 패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육하준은 단체전에서도 활약했다.

가야중, 광명중, 원통중을 차례로 이기고 4강에

진출한 서석중은 상인천중과 결승을 다했다. 육하준은 2-2 접전 상황에서 상대팀 박효관을 머리치기로 꺾고 팀의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이어 서석중은 성남중과의 결승에서 4-0 승리를 거두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선봉 김민수(2년), 2위 문율(2년), 부장 허경도(2년)가 각각 2-0, 중견 윤찬희가 2-1로 승리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최정 9단, 패자조 결승서 300수 접전 끝 스미레 격파

바둑 닥터지 결승 김은지와 대결

한국 여자바둑 1인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정(28) 9단과 김은지(17) 9단이 닥터지 여자최고기사 타이틀을 놓고 맞붙게 됐다.

최정은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닥터지 여자최고기사 결정전 패자조 결승에서 나가무라 스미레(16) 4단과 30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 5.5집 승을 거뒀다.

이로써 최정은 최종 결승에 올라 김은지와 3번

기를 벌이게 됐다.

통산 상대 전적은 최정이 16승 6패로 여전히 앞서지만, 최근 성적은 김은지가 돋보인다.

닥터지 결승 1국은 12일, 2국과 3국은 14·15일 열린다. 우승 상금은 4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추가시간(피서방식) 30초다.

최정이 대회 5연패를 달성할지, 김은지가 최초로 닥터지 정상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